

‘리퍼트 미국대사 피습’ 이후...4월 보선 겨냥 정치권 ‘중북공방’

與 “새정치는 중북 세력 숙주” 野 “도 넘은 색깔론 정치공세”

美 ‘폭력행위’ 규정 불구 한국선 정치 이용 비판도

여야는 9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에 대한 흉기 공격 사건과 관련, 이른바
‘중북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해
‘중북 숙주론’을 꺼내들며 정쟁화를 시도
하자, 새정치연합이 ‘중북몰이’라고 비판
하며 역공을 취한 것이다.

특히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당
의 색깔론 공격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
상된다.

하지만 미국은 ‘분별없는 폭력 행위’로
규정하며 파문의 확산을 막고 있는데도 우
리가 ‘중북 자충수’를 뒤 스스로 대미외교
입지를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
다.

새누리당 서정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중북세력에 대한 관리를 사법
당국이 철저히 해야 하고,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어느 정치권이 뭐라고
하든 이번에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 이런
세력이 이 땅에 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단
호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기종은 2010년과 2012년 야당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국회 정문관에 섰고,
야당 의원의 도움으로 국회 도서관을 빌려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행사를 개최한
것은 불과 석달 전”이라며 “테러분자가
국회에서 설치도록 판을 깔아준 정당이 어
디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아
침소리’ 소속의 이노근 의원은 “새정치연
합 일부 의원들이 뭔가 좀 쟁기는 것 같다”
면서 “극단적 민족주의자의 출몰행위라
느니 라는 등 사전에 방어막을 치려고 한
다. 뭔가 제 발이 저린 격”이라고 주장했
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원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제1야당을 중북
숙주라고 몰아붙이고, 김무성 대표는 정치
쟁점화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
다”면서 “야당을 중북숙주라고 논평한 것
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
혔다.

박 대변인은 “정와대와 새누리당의 도
를 넘는 정치공세에 오히려 부끄럽다”면
서 “지금은 중북몰이를 할 때가 아니라 한
미동맹 강화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배후
를 밝혀야 한다고 명령을 내리자마자 당정
청이 중북세력 사건으로 규정, 중북몰이
를 선포하고 김·경은 역대 최대 규모인 공
안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면서 “김기종
같은 극단주의를 인정하지 않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같은 극단주의에 반대한
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치평론가인 김철근 동국
대 겸임교수는 “사건에 대해 정작 미국에
서는 ‘개인적 일탈 행위’로 보고 ‘테러’가
아닌 ‘폭력’으로 규정하는 분위기인데도
우리 내부에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미’
‘친북’ 프레임을 만들어 4강 외교에서 스
스로 입지를 좁히고 있다”며 “이번 사건
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병실을 방문해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통령 “리퍼트, 의연한 대처 큰 감동”

귀국 직후 병문안...美 대사 “한·미양국 발전 최선”

리퍼트 대사 오늘 퇴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오전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서울 신촌세
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인 마크 리퍼트 주
한 미국대사를 병문안했다.

박 대통령이 귀국 첫 일정으로 리퍼트
대사를 방문한 것은 빠른 회복을 보이는
리퍼트 대사가 이르면 10일 퇴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도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
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
다.

박 대통령은 병실로 들어서자마자 리퍼
트 대사와 반갑게 악수를 하면서 “중동 순
방 중에 대사님 피습 소식을 듣고 정말 크
게 놀랐다”며 “저도 지난 2006년에 비슷
한 일을 당해 바로 이 병원에서 두 시간 반
수술을 받았는데 대사님도 같은 일을 당하
셨다는 것을 생각하니 더 가슴이 아팠
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대사님이 의연하
고 담담하게 대처하시는 모습을 보고 미
국과 한국 양국의 국민이 큰 감동을 받
았다”며 “오히려 한미 관계가 더 가까

워지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
했다.

이에 리퍼트 대사는 “대통령께서 고향
의 공격을 받고 수술을 받으셨던 병원과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도 큰 인연
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님을 비롯
해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 국민이 보여준
관심과 위로에 저는 물론 아내도 큰 축복이
라고 느꼈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감
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리퍼트 대사가 입원중인 신촌 세브
란스병원장 측은 9일 브리핑에서 “얼굴
상처 부위의 실밥 일부를 오늘 아침 제거
했고 10일 오전 중에 나머지 절편을 제거
할 것”이라며 “10일 오후에 퇴원할 것으
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천정배 “무기력한 호남정치 부활시키겠다”

광주서울 보선 무소속 출마 선언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9일 “무기력
에 빠진 호남정치를 부활시키고 희망을
잃어버린 야권을 재구성해서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겠다”면서 4·29 광주 서구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
다.

천 전 장관은 이날 광주 서구 농수산물
유통센터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치민주연합이 이대로는 수권정당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없고 따라서 정권을 찾아
올 가능성도 없다”며 “광주 서구를 유권
자들의 신임을 얻어서 새판을 짜려고 한
다”며 탈당후 무소속 출마의 이유를 밝혔
다.

시민사회와 다른 정치세력과의 연대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후보를 선정
하려는 움직임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며 “그분들이 저를 시민의 후보로 선정해
주시면 즐거움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광주 서구를
보궐선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가지고 수락하겠다”고 말했다.

천 전 장관은 “이번 보선에서 유권자들
이 저를 선택해주면 호남과 광주의 민심이
드러난만큼 새롭고 유능한 인물이 무쳐

세력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총
선에서 광주 6개 호남 30개 지역에 유능하
고 개혁적인 합리적인 인물들을 모아서 물
갈이를 시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천 전 장관은 ▲지방재정력, R&D 확대
▲수소에너지 메카사업 ▲빛가람 혁신도
시와 연계한 에너지 연구개발 단지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천 전 의원이 당내의 민주
적인 국민참여경선을 거부하고 무소속 출
마를 강행한 것은 어떤 명분도 없는 일이
며 박근혜 정권에 대한 견제는 고사하고
야권 분열만 가속화시킬 뿐이다”면서
“대의명분을 위해 선당후사의 길을 걸어
오셨던 두 분 대통령(김대중·노무현 대통
령)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것이
다”며 천 전 장관의 무소속 출마를 비난
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野 집권 위해선 중도·충청·중산층 공략 강화해야”

새정치 민주정책연구원 보고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
책연구원에서 집권을 위해서는 이념적 중
도층과 경제적 중산층 등 ‘중원 공략’을 강
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민주정책연구원 내 집권전략 연구그룹
인 ‘2017 위원회’는 9일 ‘중원공략 보고서’
를 통해 “총선과 대선에 앞서 당의 전열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며 구체적 실행과제
로 ‘하이테크(TECH, Trust·Economy·
Change·Honor, 신뢰·경제·변화·품격)’
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우선 신뢰와 안정을 주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서민의 정당이나 시민사회를 위한
정당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중산층 및 다
양한 계층을 끌어안는 ‘포괄정당’이 되어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어 “지난 대선 패배 원인이
후보의 불안함 차이라는 분석도 있었던 만
큼, 문 대표는 정치와 거리를 두고 경제에
몰두하다, 그 외의 영역에서 박근혜 대
통령과 차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원회는 또 “지역별 인구 변동을 고려
해 수도권과 충청을 장악해야 한다. 호남
을 다독여야 한다”며 “2030세대 뿐 아니
라 40~60대를 대변해 ‘386 세대’와 ‘유신
세대’의 지지를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

당내 고질적인 문제인 계파갈등에 대
해서도 “화이부동(和而不同·서로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화목하고 단합한다) 문화
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與 ‘CCTV입법’ 재시동

“4월 국회 최우선 처리”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란, 4월 임시국
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패
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마련돼 여야가 처리하기
로 합의했으나, 지난 3일 본회의 표결을 통
과하지 못했다.

당 정책위원회와 아동학대근절특별위
원회 소속 의원들은 9일 원우철 정책위의
장 주재로 “우리 아이 안심보육 대책회의”
를 열어 영유아보육법을 4월 국회에서 최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명수
정책위 부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1위 최고의 새마을금고 2015 광주시 골목상권 정책자금대출 출시!!

각종 도·소매업/음식점
주점업/서비스업 등

식당, 학원, 노래방, 당구장,
카센터, 사진관, 컴퓨터수리,
세탁소, 세차장, 미용실,
피부관리, 방앗간, 스포츠시설,
PC방, 전통시장상인 등

연 이 율 1.25 ~ 1.4%

대출기간 3년/5년

최 고 2천만원

※36억 선착순 접수
(기존 대출자도 가능)

더 행복한 우리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신분증